

冠·婚禮를 중심으로 본 朝鮮時代 班家에서의 行禮規範과 空間使用

김기주

(연세대, 공학박사)

김성우

(연세대 건축공학과 부교수, Ph.D.)

1. 서론

1-1. 연구배경

太祖 李成桂와 新進士大夫들에 의하여 1392년 개국되었던 朝鮮은 불교를 사상적 기초로 하였던 高麗와는 달리 유교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그에 따라 개국초부터 『家禮』¹⁾에 의한 冠婚喪祭禮의 시행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하였었다.²⁾ 家禮³⁾의 실천적인 측면이 당시 執權士大夫들과 儒者들의 이상에 부합하였기 때문이다.

冠婚喪祭禮의 四禮로 구성되어 있는 家禮는 이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그 시행이 강조됨과 더불어

어 16세기에 들어서는 士林의 성장과 함께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鄉村社會에까지 보급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또한 16세기말 이후에는 이들 士林들이 『家禮』에 의한 冠婚喪祭의 행례를 위하여 당시로서는 내용의 이해가 어려웠었던 『家禮』를 보다 쉽게 해설하고, 조선에서의 상황을 일부 반영하여 家禮書를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冠婚喪祭의 四禮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祭禮를 우선하여 祭禮書가 간행되었고, 이어 喪禮를 포함

2) 太祖는 卽位敎書 4條에서 “冠婚喪祭는 나라의 중요한 규범이니 禮曹는 經典을 자세히 연구하고古今의 時勢를 참작하여 표준을 결정 제시함으로써 人倫을 두텁게 하고 風俗을 바로 잡으라”고 하여 士大夫 및 庶人の 習俗을 儒敎經典에 의거해서 고치고 규제하겠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하였다.(『太祖實錄』 원년 7월 丁未條)

1) 『家禮』는 중국 南宋시대(1127~1279) 士大夫家の 표준적인 冠婚喪祭禮의 절차와 법식을 규정한 책으로 중국 고전 禮書에 대한 재해석을 바탕으로 性理學의 집대성자였던 朱熹(1130~1200)에 의하여 저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본고에서의 家禮는 두 가지로 표기된다. 그것이 서적을 의미하는 경우 『』를 사용하여 『家禮』로 표기하였고, 실제 冠婚喪祭의 儀禮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家禮로 표기하였다.

한 喪祭禮書, 그리고 17세기에 들어서는 冠婚喪祭가 모두 포함된 四禮書가 간행되기 시작하였다.⁴⁾

이와 같이 士林들에 의하여 家禮書가 간행되었음은 禮論의 발달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조선조 사회에서도 나름대로의 이상적인 규범을 추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실이다. 즉, 그 당시 冠婚喪祭의 행례에 있어 가장 이상적으로 추구한 것은 『家禮』였으나 실제로 우리나라의 관행을 잘 알고 있었던 禮論家·禮學者들 역시 이상적인 행례의 규범으로서 家禮書를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家禮書에 포함되어 있는 圖說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家禮』에는 행례의 절차와 더불어 그 과정과 공간사용방식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圖說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조선에서 간행되었던 家禮書는 『家禮』보다 더 많은 圖說을 각 儀禮別로 자세하게 例示하고 있으므로 조선에서의 家禮書가 양반계층에서 이상적인 冠婚喪祭禮의 행례규범으로 사용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 17세기 이후 儒敎의인 방식에 의한 冠婚喪祭禮의 행례가 양반계층에 보편적인 것으로 자리잡게됨에 따라 『家禮』는 물론 조선에서 간행되기 시작하였던 家禮書는 행례의 규범으로 儀禮生活를 지배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래의 고유한 관습과 의식구조가 이상적인 규범에 의하여 완전히 변할 수는 없었다. 특히, 婚禮의 경우에는 전래의 壻留婦家婚의 풍습이 워낙 강하게 뿌리박고 있었으므로 이상적인 규범에서의 親迎이 아니라 전래의 관습을 적절히 혼합하여 半親迎이 행하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행례규범에 의해서건 전래의 관습과 혼용된 방식에 의해서건 喪祭禮 등의 儀禮가 寺刹을 중심으로 佛敎의인 방식에 의하여 행하여졌던 고려와는 다르게 冠婚喪祭의 儀禮가 班家の 내부에서 행하여지게 되었다. 이는 班家の 공간구조가 이들 儀禮를 수용해야함

을 의미하는 것으로 兩班士大夫들의 住居空間이었던 班家が 한편으로는 儀禮空間을 겸해야만 하였던 사정을 말하여주고 있다. 그리고 班家에서의 儀禮 수용은 기존의 생활공간에 별다른 공간변용 없이 그대로 수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상적인 행례규범에 따라 새로운 儀禮空間을 필요로 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家廟, 즉 祠堂이 班家の 내부에 중심적인 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은 家禮의 시행에 따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家禮의 시행은 직간접적으로 班家の 형식과 공간 사용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班家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家禮는 유교문화의 확대과정속에서 부분적으로 인용되고 있을 뿐이며, 중심적인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는 못한 편이다. 따라서 유교적인 문화환경속에서 형성되었던 조선시대 班家の 총체적 이해를 위해서는 班家の 내부에서 冠婚喪祭의 四禮가 어떠한 방식으로 행하여졌고, 또 이러한 家禮의 행례가 班家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을까 하는 것이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조선시대 16세기말 이후 士林들에 의하여 간행되기 시작하였던 家禮書의 규범적 절차 및 행례공간 사용의 규범을 실제 班家에서의 절차 및 儀禮空間사용의 관행과 비교분석하여 儀禮生活규범과 班家の 공간구성과의 상관성을 파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조선 중기에 설정되는 행례규범과 20세기까지 남아있는 관행적 실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조선시대 班家の 해석에 한가지 틀로 삼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일차적으로 冠婚喪祭의 四禮중 喪祭禮를 제외한 冠婚禮만을 대상으로 家禮書의 행례규범과 班家에서의 관행을 비교분석하였다. 여기서 冠婚禮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冠婚喪祭의 四禮중 冠婚禮가 관행에서는 별개의 儀禮가 아니라 婚禮日이 정해진 후 冠禮가 행하여지는 것이

4) 家禮의 보급과 家禮書의 간행에 대해서는 필자의 학위논문 「朝鮮時代 中期 이후 班家の 공간사용과 평면형식에 미친 家禮의 영향」(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4) 2장 참조.

보통이었기 때문이다.⁵⁾

이상에서와 같은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규범과 관행의 비교분석이 중요한 연구방법의 틀이 된다. 우선 冠婚禮의 행례규범을 분석하기 위하여 16세기말 이후 조선에서 간행되었던 家禮書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내용검토에 이용된 家禮書로는 『家禮輯覽』⁶⁾·『家禮源流』⁷⁾·『四禮便覽』⁸⁾ 등이 있다. 그리고 이들 家禮書에 포함된 圖說은 공간사용의 행례규범으로서 분석내용에 포함하였으며, 그 분석은 家禮書의 圖說을 근거로 하여 각각의 절차에 따른 행례공간을 새로이 도식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실제 班家에서 행하여졌던 冠婚禮의 관행을 조사하는데 있어서는 家禮의 행례절차와 공간사용을 사실 그대로 기록해 놓은 역사적 문헌이 부재하는 까닭에 부득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추정과 복원을 하였다. 즉, 행례절차에 관하여서는 儀禮의 절차를 간략히 기록하여 실제 관행에서도 사용하였으리라 여겨지는 笏記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행례공간과 각 행례공간에서의 공간사용방식에 관하여서는 현재에도 전통적인 방식에 의하여 儀禮가 행하여지고 있는 가문을 답사하여 宗孫 혹은 宗婦와의 면담내용을 분석하였다. 최근에 이루어진 면담이었으나 과거에 어떠한 방식으로 행례가 이루어졌는가를 기록·조사하였으므로 그 내용은 19세기말까지 소급될 수 있으며, 班家에서의 공간구성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 행례의 공간사용방식에도 큰 변화가 없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들과의 면담내용을 근거로 행례의 공간사용방식을 실제 班家の 평면에 도식화하여 규범에서의 행례공간과 공간사용방식을 비교하였다.

여기서 관행에 관한 면담조사는 16·17세기에 造營되었던 班家を 위주로 하되 18세기의 班家を 일부포함하였다.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영남지역이 15가옥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호남지역과 호서지역의 班家を 각각 1가옥, 2가옥 포

함하였다. 영남지역에 편중된 지역적인 한계가 있으나 이는 조선중기에 造營되어 현존하고 있는 班家の 지역적 분포와 일치하는 것으로 당시 영남출신이 득세하고 있었던 정치적인 상황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연구의 진행과정에서는 실제 冠婚禮의 관행을 民族誌적인 자료로 수록하고 있는 자료를 다수 참조⁹⁾하여 지역적 한계와 부족한 자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2. 冠禮의 行禮節次와 空間使用

冠禮란 남자아이가 처음으로 갓을 쓰게 되는 날 갓을 의식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家禮』에는 남자 나이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冠禮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행하여진 것은 기록상으로 高麗 光宗 16년(966)의 일로서 “16년 봄 2월 光宗은 왕자에게 元服을 입히고 太子로 삼았다”¹⁰⁾고 하였다. 그 이후 유교를

6) 조선중기의 禮論家인 金長生이 『家禮』를 增補 解說한 家禮書로서 1685년에 宋時烈등의 제자에 의하여 간행되었다.

7) 兪啓와 尹宣學가 함께 엮은 家禮書로서 兪啓의 손자인 相基가 1711년에 간행하였다. 四禮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지만 여러 古典에서 관계사항을 발췌하여 엮은 것일 뿐 엮은이의 견해를 밝히고 있지 않다.

8) 陶庵 李穡(1678-1746)선생이 『喪禮備要』를 중심으로 冠婚禮를 포함하여 저술한 家禮書로서 조선 후기에 儀禮의 典範으로 가장 널리 읽혔다.

9) 본고에서 참조한 民族誌적인 자료로서는 다음과 같은 문헌이 있다.

朴惠仁, 『韓國의 傳統婚禮研究』,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8

장철수,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 한국정신문화원, 1984

영남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慶北禮樂誌』, 1989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禮節篇)』, 1987

전라북도, 『全北傳統民俗(상)』, 1990

서울시, 『서울民俗大觀(通過儀禮編)』, 1993

한국문화원연합회, 『慶南民俗資料集』, 1993

5) 한편, 喪祭禮는 죽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儀禮이므로 이들 儀禮에 대한 규범과 관행에서의 공간사용분석은 다음의 논문에서 다루기로 한다.

사상적 기반으로 하는 조선시대에도 왕실에서의 冠禮는 지속되었다. 그렇지만 기록에 의하면 왕실이 아닌 일반민들의 冠禮는 상층에서는 행하여졌으며 하층민의 경우는 잘 행하여지지 않았었다.¹¹⁾ 이는 冠禮가 지배계층만의 儀禮로서 의미가 있었기 때문¹²⁾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17세기 이후에는 冠禮가 婚禮에 편입되어 시행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것은 壬辰亂과 丙子亂 이후 早婚의 風習이 지속됨으로써 婚禮의 시기와 冠禮의 시기가 겹쳐지게 된 결과이다. 그에 따라 일부 儒者들은 이러한 관행에 대하여 冠禮를 婚禮와 함께 행하지 말고 본래 『家禮』대로 각각의 禮를 행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¹³⁾ 그렇지만 일단 婚禮의 일부과정으로 편입된 冠禮는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갖추게 되어 본래의 의미를 잃게 되었으며, 대한제국시기에 이르러 단발령이 시행된 이후에는 冠禮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다.

2-1. 家禮書의 行례절차와 공간사용

家禮書의 규범에 의하면 冠禮를 행하기에 앞서 冠禮日을 택하고, 이렇게 擇日이 되면 冠禮 삼일 전에 宗孫이 祠堂에 장차 冠禮를 행하게 되었음을 고한다.

그 다음에는 ‘戒賓’이라 하여 冠禮를 주관할 주례자로서의 賓客을 모시는 절차이다. 家禮書에서는 宗孫의 친구 가운데 어질고 禮法을 잘 아는 분을 골라서 賓客으로 삼는다. 그리고 冠禮의 하루 전날 廳事의 동북쪽에 휘장을 쳐서 冠禮의 장소인 房을 마련하고, 冠禮日 새벽에 冠과 衣服을 진설하고 三加禮¹⁴⁾에 필요한 諸具가 놓여 있는 탁자를 房의 가운데 설치한다. 또한 廳事에 오르는 계단이 없을 경우에는 횃가루로써 廳事에 3계단을 그리도록 한다. 이는 三加禮를 행함에 있어 賓客이 初加·再加·三加的 매 절차마다 한계 단씩 내려가 冠服을 받아 冠禮者에게 입힐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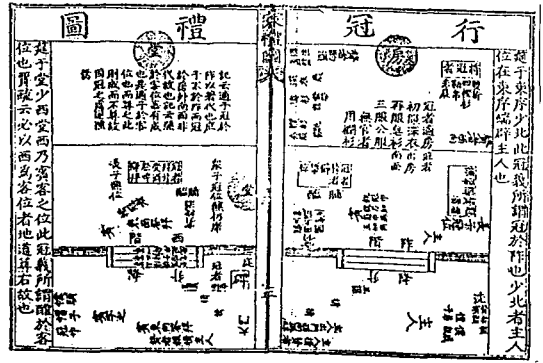


그림 1. 『家禮』의 ‘行冠禮圖’

한 것이다.

冠禮日에 賓客이 贊者¹⁵⁾와 함께 도착하면 주인이 대문 밖에 나와 맞이하고 主人과 賓客은 廳事의 堂에 올라서고 贊者는 房으로 들어가 冠禮者를 앞에서 돕는다. 절차에 따라서 三加禮를 우선하여 행례가 이루어지는데, 각각의 절차마다 賓客의 祝辭¹⁶⁾가 따른다. 이때 冠者는 廳事의 동북쪽에 미리 마련된 房과 그 남쪽의 공간을 왕복하게 된다.

三加禮가 끝나면 醮禮¹⁷⁾와 加字禮¹⁸⁾가 이어진다. 贊者가 房에 들어가 술을 따라 나오면 賓客이

- 11) 『中宗實錄』 29년 3월 庚午條
‘御夕講 侍讀官金遂性曰 …… (中略) …… 我國之冠禮 行於上而不行於下 其習已成固不可卒變也’
- 12) 장철수, 앞책, p.13
- 13) ‘不可以冠昏同時而據昏推冠 家禮冠昏異文固有深意而來示以今日冠昏同時據昏而欲推之於冠鄙未敢以爲然也 至於因喪冠又不可例之於此也’(『艮齋先生禮說』, 박혜인의 앞책 p.101 註42 재인용)
- 14) 三加禮는 어른이 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初加的 경우에는 어른의 평상복을, 再加에는 어른의 출입복을, 그리고 三加에는 어른의 禮服을 입는다.
- 15) 冠禮의 시행단계에 있어서 賓客인 主禮者와 함께 參禮하며, 冠者의 앞에서 冠服을 갈아입는 것 등을 보조하는 역할은 맡는다.
- 16) 각 절차에 따르는 祝辭는 初加에는 어른으로서의 덕을 따르도록 타이르는 내용을, 再加에는 출입시에 거동을 의젓하게 하고 복을 누리라는 내용을, 三加에는 오래도록 壽를 누리려 경사가 있으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 『高麗史』 光宗 16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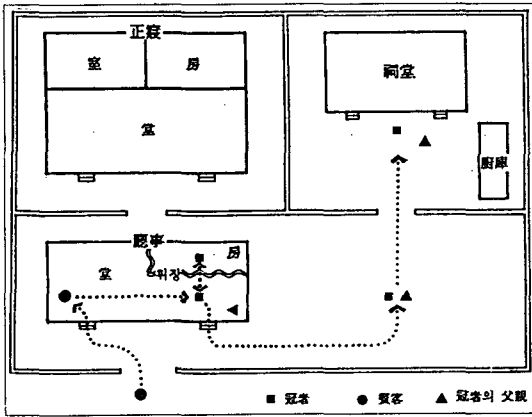


그림 2. 家禮書의 圖說에 근거한 冠禮의 空間使用

술잔을 받아 북쪽을 향하여 祝辭를 하고, 祝辭가 끝나면 冠禮者가 再拜한후 잔을 받고 賓客이 이에 答拜한다. 冠禮者가 술을 마신 다음 再拜하면 賓客이 또 이에 答拜한다. 이러한 醮禮의 절차에 있어서는 冠者가 長子인가 혹은 衆子인가에 따라 空間使用방식이 서로 다르다. 즉, 冠者가 長子인 경우에는 廳事 중간의 조금 서쪽에 남향하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것에 반하여 衆子인 경우에는 자신이 쓰던 房앞의 자리를 그대로 사용케 된다.

다음은 加字의 節次로 賓客이 字를 주고 祝辭를 하면 冠禮者는 答辭하고 再拜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賓客과 主人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賓客은 贊者와 함께 다른 장소로 물러난다. 이렇게 醮禮와 加字禮가 끝나면 主人이 冠禮者를 데리고 祠堂에 알현하고, 冠禮者는 어른들을 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家禮輯覽』에는 祠堂에 알현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있기도 하며, 우선 부모님과 일가 친척이나 손님들에게 인사를 드린 후에 祠堂에 고하기도 한다.

이때 부모는 堂에서 남쪽을 향하여 앉고, 여러 숙부나 형은 동쪽벽에 서열하고 부녀자들은 서쪽벽에 서열하여 앉는다. 만약 宗孫의 아들이 아니면 먼저 宗孫과 아버지보다 尊長인 분을 堂에서

17) 원래의 酒法은 술잔을 돌리며 마시는 것이지만 醮禮는 술잔을 돌리지 않고 혼자서 술을 마시는 절차로서 이는 맹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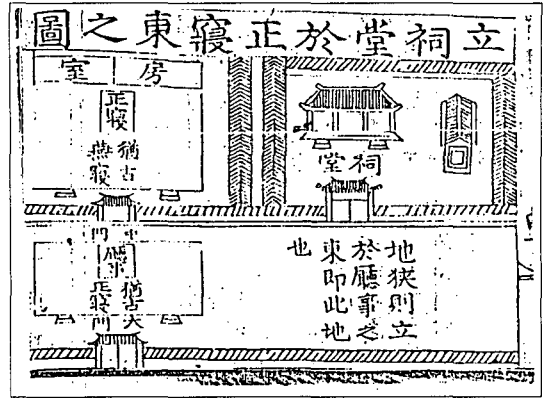


그림 3. 『家禮源流』의 '立祠堂於正寢東之圖'

뵈고 私室로 가 부모와 나머지 친족을 뵈는다. 이로써 冠禮의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은 家禮書에서의 冠禮절차와 그에 따른 空間使用은 크게 祠堂 - 廳事(堂과 房) - 祠堂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祖上의 神位를 모시고 있는 祠堂은 행례의 시작과 마무리를 고하는 상징적인 空間으로, 廳事는 실제 행례의 중심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冠禮의 空間使用을 家禮書에서의 '立祠堂於正寢東之圖'에 근거한 도면에 도식화한 것이 그림 2와 그림 3이다.

한편, 『四禮便覽』에는 冠禮는 물론 여성에게 행하여지는 笄禮의 행례공간도 圖說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笄禮의 공간이 冠禮와는 달리 正寢이라는 사실이다.

즉, 『家禮』의 圖說에는 笄禮의 행례에 관한 圖說이 없지만 조선에서 간행되었고, 조선후기에 가장 널리 읽혔던 家禮書인 『四禮便覽』의 圖說에는 笄禮의 행례공간으로서 正寢을 말하고 있다. 家禮書의 내용에 笄禮의 행례공간을 별도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圖說에서 '房'의 서쪽을 '室'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堂을 전면에 두고 그 후면에 東房西室의 空間구성을 하고 있는 正寢과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冠禮의 행례공간과는 달리

18) 字를 지어주는 것으로서 이제 어른이 되었으므로 부를 이름이 필요하게 되고, 본명은 존귀하게 여겨 아무나 부를 수 없었으므로 이렇게 字를 붙여 쉽게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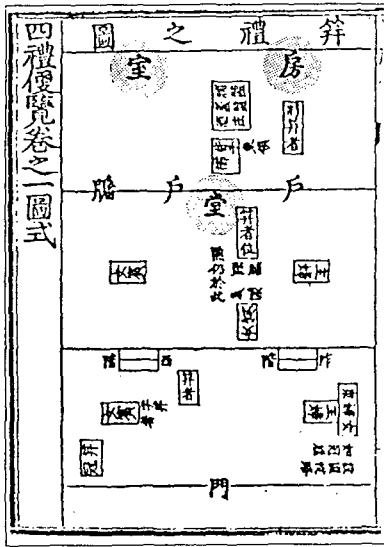


그림 4. 『四禮便覽』의 '筓禮之圖'

筓禮의 행례공간은 正寢으로 보아야한다. 이와 같이 冠禮와 筓禮의 행례공간이 각기 廳事와 正寢으로 서로 다른 것은 당시 조선에서 남녀의 공간 사용 규범이 구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內外思想이 공간사용의 구분으로 家禮書에서도 가려지고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4)

2-2. 관행에서의 행례절차와 공간사용

조선중기인 17세기 이후 冠禮는 早婚의 풍습에 따라 婚禮에 편입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지역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婚禮日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婚姻 前에 행하는 것이 보통이었다.¹⁹⁾ 그리고 이렇게 冠禮日이 정해지면 冠禮의 삼일 전에 冠禮者의 부친이 祠堂에 장차 冠禮를 행하게 되었음을 곁하는 것은 家禮書의 규범과 동일하다.

관행에서 冠禮의 행례는 사랑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冠禮의 절차가 적혀있는 笏記를 사용하여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봉화의 권충재 가옥(권정우씨)의 경우에는 안채에 연결하여 있는 사랑채에서 冠禮를 치루어졌으며, 안동의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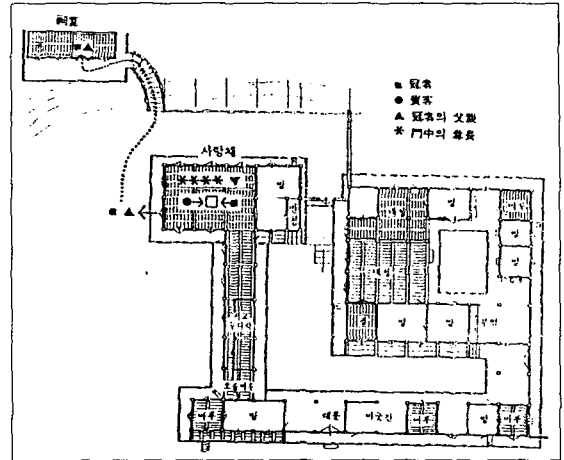


그림 5. 안동 의성김씨 대종가(김창균씨)의 冠禮時 공간사용

성 김씨 대종가(김창균씨)의 경우에도 역시 안채와는 떨어져 독립된 영역을 형성하고 있는 사랑채에서 冠禮를 치루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양동마을의 손동만 가옥을 비롯하여 하회마을의 충효당, 대전의 동춘당 등 冠禮의 행례공간을 조사한 班家 모두 冠禮가 사랑채에서 행하여졌다. 여기서는 김창균씨와 권정우씨가 행하였던 冠禮를 중심으로 공간사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김창균씨의 경우는 사랑채의 사랑대청에서 尊長들을 모시고 冠禮가 행하여졌다. 우선 冠禮에 사용할 諸具를 대청의 동쪽에 마련하고 사랑대청의 북쪽에 尊長들이 나란히 앉는데, 이때 주인인 김시우씨는 동쪽 끝에 앉았다. 그리고 賓客을 모시되 賓客은 서쪽에 서서 동향하고 冠者는 동쪽에 서서 서향하게 된다. 이어서 三加禮가 행하여지는데, 家禮書에서는 冠者가 廳事의 房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사랑방을 이용하지 않고 사랑대청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初加·再加·三加的 순서에 따라 三加禮가 모두 행하여졌으며, 매 절차마다 賓客이 직접 冠服을 입혀주고 祝辭를 하였다. 이때에도 家禮書에서는 賓客이 廳事의 계단을 한 단씩 내려가 冠服을 받아 冠者에게 입혀주도록 되어 있지만 사랑대청에서 장소의 이동이 없이 그대로 행하여졌다. 祝辭가 행하여지는 동안 冠者는 무릎을 꿇고 앉아 축

19) 장철수, 앞책, P.23

문의 내용을 귀담아 듣는다. 이어서 醮禮가 행하여지는데, 冠者와 賓客은 대청의 중간에 마련된 醮禮床을 마주하고 앉아 醮禮를 행하고 冠者は 재배하고 남쪽을 향하여 잔을 받는다. 그런 후에 賓客이 冠者에게 字를 지어주는 加字禮가 이어졌다. 家禮書에 따르면 加字禮는 廳事에서 내려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사랑대청에서 행하여졌다. 이상에서와 같은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는 冠者의 父親은 冠者를 데리고 祠堂에 가서 冠禮가 이루어졌음을 고하였다고 한다.

권충재가옥의 경우²⁰⁾에는 안채의 남서쪽에 있는 사랑채의 큰사랑방과 사랑대청에서 冠禮가 행하여졌다고 한다. 冠者는 사랑방에서 冠服을 갈아 입고 사랑대청으로 나아가 서향한 위치에 서고, 賓客은 사랑대청의 서쪽에서 동향한 위치에 서서 三加禮가 이루어졌다. 三加禮 후에는 의성김씨 대종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醮禮가 이어졌으며, 醮禮가 끝나고 나서는 賓客에 의하여 사랑채 앞의 사랑마당에서 加字禮가 행하여졌다.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三加禮와 醮禮의 행례공간으로 방과 마루가 사용되고, 醮禮 후의 加字禮가 사랑채의 앞마당에서 행하여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행에서의 공간사용은 家禮書에서의 공간사용 규범과 동일한 것으로 17세기 이후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冠禮를 행함에 있어 家禮書의 규범이 관행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설명하여 준다.

이러한 절차를 마친 후에는 의성김씨 대종가의 경우에서처럼 父親과 함께 祠堂에 가서 고하였는데, 祠堂의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祠堂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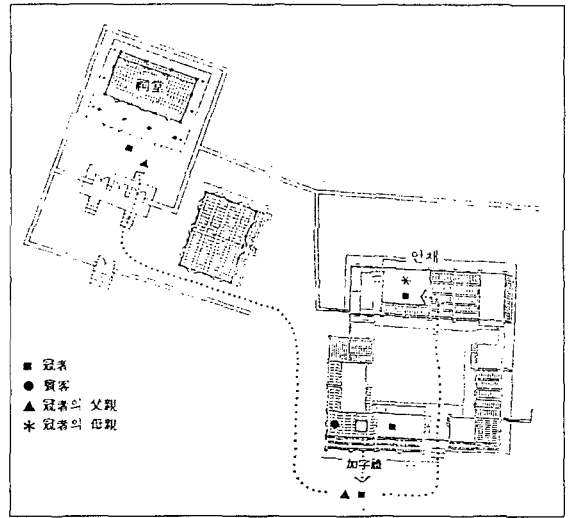


그림 6. 봉화 권충재 가옥(권정우씨)의 冠禮時 공간사용

밖에서 고하였다. 그리고 나서 사랑채에 계시는 祖父와 父에게 인사를 드리고 다시 안채로 가서 祖母와 母에게 인사를 드림으로써 冠禮의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한다.

이상에서와 같은 관행에서의 冠禮는 절차에 있어서만큼은 家禮書와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특히 家禮書에 근거하여 그 절차를 기록하고 있는 笏記를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관행에서의 冠禮도 절차에 있어서 『家禮』에 충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관행에서는 冠禮가 婚禮에 편입되어 시행되었던 까닭에 형식적인 절차만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공간사용에 있어서 祠堂은 家禮書와 마찬가지로 행례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시작과 마무리 단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행례의 중심공간은 家禮書에서는 廳事였지만 실제 班家에서의 행례는 사랑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조선에서의 班家の 형식과 중국이나 혹은 조선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였던 주택의 형식이 서로 달랐던 것에서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적인 冠禮의 행례공간으로서 家禮書에서의 廳事를 조선사회에서는 班家の 사랑채로 해석하여 행례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공간사용의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

20) 권충齋 가옥은 中宗 14년(1519) 己卯土禍 후에 沖齋 權權이 초창한 것으로서 16세기 초의 건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여러차례의 重修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1945년을 전후한 시기에 마지막으로 重建이 있었고 이때 몸체의 대부분을 개조하여 원형이 많이 훼손되었다고 한다. (주남철 교수)

그렇지만 家屋의 구조가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므로 宗孫인 권정우씨와의 면담을 통하여 冠禮의 행례공간을 도식화하였다.

의 사실은 비록 행례의 공간이 廳事·사랑채로 서로 다르기는 할지라도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즉 공간사용의 방식에서는 서로 다른 점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즉, 冠禮의 시작에서 賓客과 冠禮者의 위치선정을 비롯하여 三加禮·醮禮·加字禮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공간사용방식이 家禮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家禮書가 간행되기 시작하였던 16세기말 이후 19세기말에 이르기까지 冠禮의 공간사용방식에 큰 변화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다.

3. 婚禮의 行禮節次와 空間使用

婚禮란 冠禮 또는 笄禮를 마친 남녀가 장가들고 시집가는 儀禮를 말하는 것으로 『家禮』에 남자는 16세에서 30세 사이에, 여자는 14세에서 20세 사이에 婚禮를 올리고 ‘親迎’의 절차가 중요한 과정으로 포함되어 있다. 즉,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여 本家에 돌아와 婚禮式을 올리는 것을 규범으로 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조선사회에 있어서 이와 같은 『家禮』에 의한 婚禮의 시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나라 고유의 婚俗은 ‘婿留婦家’(혹은 男歸女家)라 하여 婚禮를 신부집에서 올리고 혼인 후 얼마간 처가에 머물거나 혹은 아이가 성장한 뒤에 본가로 돌아오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므로 『家禮』의 親迎과는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²¹⁾

그에 따라 조선초기와 중기에 이르는 기간중 王室과 執權士大夫들 사이에는 親迎의 시행여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고²²⁾, 王室에서의 婚

禮에는 親迎을 직접 행하기도 하여²³⁾ 일반사대부가에서의 親迎을 권장하였다. 하지만 전래의 婚俗을 『家禮』에 의한 것으로 완전히 바꿀 수는 없었고²⁴⁾, 明宗代에 이르러서는 전래의 婚俗과 親迎을 절충한 형식으로서의 ‘半親迎’²⁵⁾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²⁶⁾ 그리고 그 이후 20세기에 이르기까지 士大夫家에서의 婚禮에 있어서는 半親迎이 하나의 전형으로 자리잡고 널리 행하여졌다. 다만 婚禮를 올린 뒤 媿家에 가서 見舅姑禮를 올리고 다시 신부집에 와서 머무는 婿留婦家의 기간이 조선후기에 올수록 점차 짧아지는 경향이 있음은

22) 『中宗實錄』 7년 11월 壬辰條

“御夕講 世讓曰 古者若親迎之後 則男必率女而居 今則如秦俗之贅 男居于女家者甚多 此甚非矣 仲暉曰 此非猝變之事 漸次變之可也 如居主之處 不可使居某處 上曰 居處則不可使居某處 但婚姻之不親迎 則至爲不可也”

『中宗實錄』 10년 10월 戊寅條

“柳洵鄭光弼金應箕金詮議曰 本國婚禮極爲鄙俚 俗行親迎其意甚善 但習俗已久且婦女多不閑禮儀 一從古制似難”

23) 國家王室에서의 婚禮에 親迎을 행하였음은 實錄을 통하여 여러차례 발견할 수 있다. 太宗 15년 誠寧大君이 親迎을 행하였다는 기록(『太宗實錄』 15년 12월)을 시작으로 世宗 17년에도 王世子的 婚禮에 親迎의 행한 기록(『世宗實錄』 17년 3월)이 있다. 또한 中宗 12년에는 왕이 文定王后를 맞이함에 친히 太平館에서 親迎禮를 행한 기록도 있다.(『中宗實錄』 12년 3월)

24) 박혜인(앞책, pp178 - 187)은 李樹健의 士林派에 대한 연구(『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79)와 宋俊浩의 南原地方 鄉村社會에 대한 研究(『南原地方을 例로 하여본 朝鮮時代 鄉村社會의 構造와 性格』, 대구사학회 학술발표논문, 1986)의 분석을 통하여 조선초기에서 중기에 이르는 시기에 집권사대부들에 의하여 행하여졌던 婿留婦家婚의 실체를 분석하고 있다.

25)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婚禮를 올리고 初夜를 보낸 후 다음날 本家로 돌아와 媿父母를 뵈는 것이다.

26) 『增補文獻備考』 卷69 禮考6,

“明宗朝 士庶家婚禮 稍變前制 婿初到婦家 婦女到婦家 婦出而行禮 交拜合卺 明日謁舅姑 謂之半親迎”

21) 『世宗實錄』 12년 7월 庚午條

“本國之俗與中國異 不行親迎之禮 故或乳養於外家 或長

於妻父家恩義甚篤”

『成宗實錄』 18년 8월 癸酉條

“我國之俗養於妻家 視處父母猶己父母 妻之父母亦視其婿猶己子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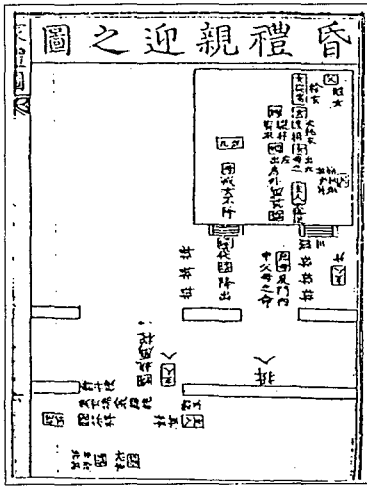


그림 7. 『家禮』의 '昏禮親迎之圖'

親迎이 비록 시행되지 않는다고 점차 父系를 중시하였던 『家禮』의 영향으로 宗法制 등의 제도가 변하고, 또 父系中心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사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1. 家禮書에서 행례절차와 공간사용

『家禮』에 의하면 婚禮의 전과정은 議昏·納采·納幣·親迎·婦見舅姑·廟見·壻見婦之父母의 7개 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대항목은 또다시 각각의 소항목으로 구분되어 전체적으로는 47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親迎에 관한 것으로 『家禮』에서도 婚禮의 전 절차중 親迎에 대해서만큼은 圖說로서 설명하고 있다. (그림 7)

조선사회에서는 朱子의 『家禮』를 가장 이상적인 규범으로 여겼으므로 家禮書를 간행함에 있어서도 『家禮』에 따라 親迎까지의 절차를 4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보았지만 『家禮』에 의하여 親迎을 시행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행례규범으로서의 家禮書를 간행함에 있어서는 '昏禮親迎之圖'뿐 아니라 구체적인 세부절차까지 圖說로 설명하여 『家禮』보다 많은 圖說을 실고 있다. (그림 8)

이와 같이 조선에서 간행되었던 家禮書에 婚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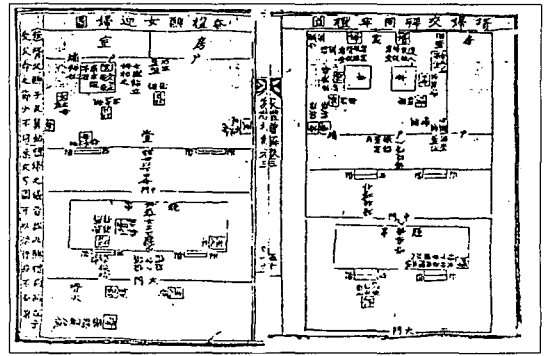


그림 8. 『家禮增解』의 '昏禮醮女之圖'와 '壻婦交同牢禮圖'

에 관한 圖說이 많이 실려 있다는 것은 冠禮와는 달리 그 절차가 복잡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親迎의 禮가 그만큼 시행되기가 힘들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親迎禮를 행함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家禮書를 간행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士林들에게는 여전히 親迎禮가 婚禮의 이상적인 규범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말하여준다. 그에 따라 家禮書를 간행함에 있어서도 婚禮의 內容과 圖說에 親迎의 禮를 반드시 포함시켰고, 실제로 행하여지고 있었던 半親迎에 대한 內容과 圖說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家禮』를 비롯하여 조선에서 간행되었던 家禮書에 근거하여 婚禮의 절차에 따른 공간사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婚禮의 준비단계에서는 婚禮에 대한 兩家의 합의가 있는 후 納采書와 許婚書를 서로 주고받는 納采와 예물 등을 주고받는 納幣가 이루어진다.

이 절차에 있어서 사용되는 공간은 祠堂과 廳事로서 婚書를 주고받음에 있어서 兩家에서는 祠堂에 이를 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손님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공간은 廳事인 것이다. 다만 納幣에는 祠堂에 고하는 절차가 생략된다. (그림 9)

이와 같이 兩家에서 예물과 예단을 서로 보내고 받는 절차가 끝나고 나서 혼례일이 정해지면 親迎의 절차로 이어지며, 혼례가 진행된다. 親迎은 이미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신랑이 신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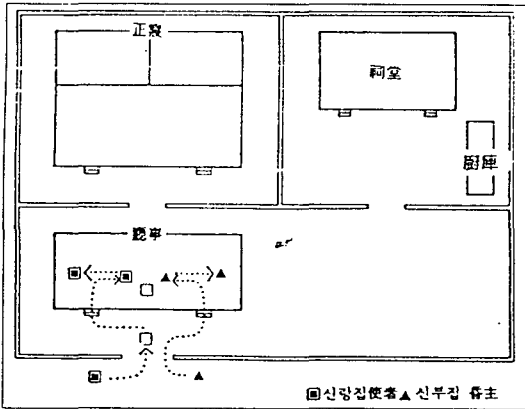


그림 9. 『家禮』의 圖說에 근거한 納采와 納幣의 공간사용(신부집)

으로 가서 직접 신부를 맞이하여 오는 절차로서 큰 의미에서 본다면 婚禮, 즉 大禮²⁷⁾도 이 절차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親迎의 절차에는 양쪽 집이 모두 행례공간으로 사용된다.

즉, 『家禮』에서는 혼례일 전날 신부집에서 사위가 임시로 머물 방을 꾸며놓게 되며, 혼례일 당일 신랑집에서는 방(室)에 혼례상을 차리고 신부집에서는 대문 밖에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親迎을 위한 공간을 준비한다.

초저녁에 신랑이 成服을 하고 主婚이 신랑을 데리고 祠堂에 고한 후 이어 正寢의 堂에서 醮禮가 이루어지고 신랑으로 하여금 신부를 맞이하여 올 것을 명한다. 촛불 든 사람과 執雁者를 앞세우고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집을 향하여 떠나고 신부집 근처에 와서는 대문 밖의 私處에서 대기하게 된다.

신부집에서도 신랑집에서와 마찬가지로 主婚이 신부를 데리고 祠堂에 가서 고한 후 正寢의 堂에서 醮禮를 행한다. 主婚이 대문 밖에 나와 신랑을 맞아들이며 奠雁禮를 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奠雁禮가 행하여지는 공간은 廳事이다. 그리고 이어서 侍母가 신부를 부축하여 신랑의 뒤를 따라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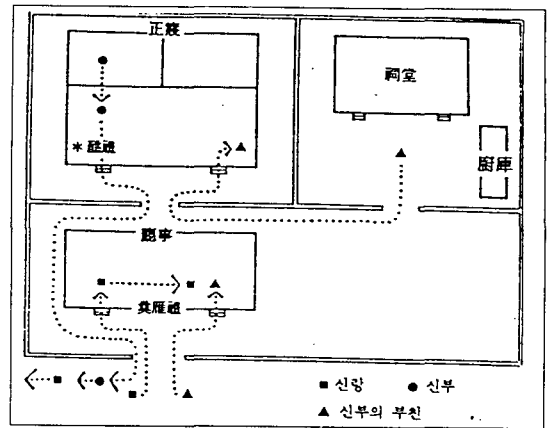


그림 10. 『家禮』에 근거한 奠雁禮와 親迎의 공간사용(신부집)

면 신랑은 말을 타고 앞장서고 신부를 태운 가마가 뒤를 따라 신랑집을 향한다. (그림 10)

신랑집에 도착하면 正寢에서 大禮가 이루어지는데, 신부를 혼례상이 차려진 正寢의 방(室)으로 안내하여 交拜禮와 合巹禮를 행한다. 이후 신랑은 방 밖으로 나오고 시중드는 사람들이 혼례상을 치우고 新房을 꾸민다. 이때 主婚은 손님을 대접함으로써 大禮가 끝난다.

혼례의 다음날 아침 正寢의 堂에서 신부가 시부모에게 인사를 드리는 見舅姑禮가 행하여지는데, 이때 신부는 미리 집에서 마련해온 폐백음식을 올린다. (그림 12)

삼일 만에 며느리는 主婚의 안내로 祠堂에 참배함으로써 신랑집에서의 婚禮 절차는 모두 마치게 된다. 이튿날 사위는 신부집에 찾아가 찾아가 신부의 부모에게 각각 폐백을 드린 후 신부측의 主婚이 사위를 祠堂으로 인도하여 간단히 고향으로서 婚禮의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된다.

이상에서와 같은 『家禮』에 의한 婚禮의 공간사용을 절차에 따라 정리하면 우선 納采와 納幣는 신랑집과 신부집이 모두 사용되며 이때 행례의 공간은 공통적으로 廳事와 祠堂이 된다. 이후 家禮書에 의하면 親迎을 행하게 되는데, 이 親迎의 절차 역시 신랑집과 신부집이 모두 행례의 공간으로 사용된다. 즉, 신랑이 신부집으로 찾아가 올리게 되는 奠雁禮는 신부집의 廳事에서 이루어지

27) 婚禮式을 올리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간혹 醮禮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醮禮라고 하는 것은 親迎의 절차에 앞서 신랑의 父가 신랑에게, 혹은 신부의 父가 신부에게 행하는 儀禮로서 大禮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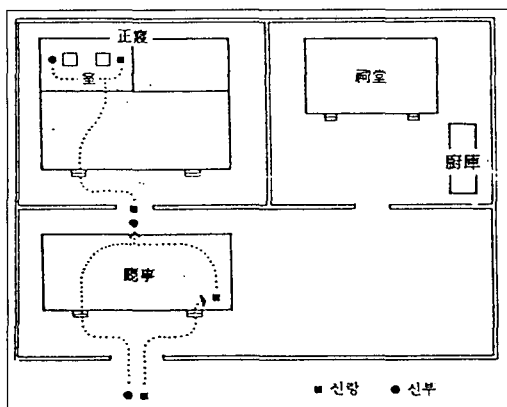


그림 11. 家禮書의 圖說에 근거한 大禮의 공간사용(신랑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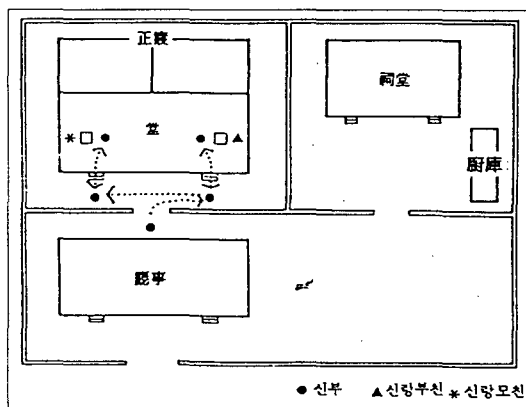


그림 12. 家禮書의 圖說에 근거한 見舅姑禮의 공간사용(신부집)

며, 이어 신부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와서는 交拜禮와 合卺禮가 모두 正寢의 室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신랑집의 正寢에서 初夜를 지내고 다음날 아침 正寢의 堂에서 見舅姑禮가 행하여지며, 며칠 후 혼인의 사실을 祠堂에 고함으로써 婚禮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다.

이러한 婚禮의 절차에 따른 공간사용에 있어서 행례의 중심공간은 신랑집의 正寢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작과 마무리는 신랑집과 신부집의 祠堂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외에도 양가에서의 廳事가 納采와 納幣의 절차에 사용되고, 또 奠雁禮는 신부집의 廳事에서 행하여지기도 하지만 혼례의 중심절차를 交拜禮와 合卺禮로 본다면 신랑집의 正寢이 행례의 중심공간이 될 것이다. 결국 『家禮』에 의한 婚禮의 절차 및 과정에서 신랑집과 신부집이 모두 행례의 주체일 수 있으나 공간사용의 측면에서는 신랑집이 행례의 주체이며, 이는 父系중심적인 사회구조 안에서 가능한 儀禮節次라고 볼 수 있다.

3-2. 관행에서의 행례절차와 공간사용

관행에 있어서의 婚禮는 壻留婦家婚의 習俗이 강하게 남아있었으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親迎시행을 강요함에도 불구하고 親迎을 행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그에 따라 조선전기

에 이르러서는 半親迎이 행하여지게 되었고, 신랑집이 婚禮의 주체가 되기 보다는 여전히 신부집이 주체가 되어 婚禮의 전과정이 진행되었다.

婚禮 당일엔 신랑은 上客(또는 後行)과 더불어 신부집으로 향하여 가되 신부집이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없는 먼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婚禮의 하루 전날 출발하였다. 신부집 근처에 도착해서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의 사처방²⁸⁾에서 婚禮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조사대상 가옥의 경우에는 대체로 신부집의 사랑채가 사처방의 역할을 하였다.

즉, 의성김씨 대종가의 경우에는 아랫사랑이 사처방의 역할을 하였으며, 신랑은 이곳에서 禮服으로 갈아입고 婚禮時까지 기다리고 上客은 장소를 옮겨 사랑채의 사랑방에서 婚禮가 끝날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그 외에 충효당이나 손동만가옥을 비롯하여 조사대상 가옥 모두 사처방으로서는 사랑방이 이용되었다고 한다.

婚禮時가 되면 신랑은 사랑방에서 衣冠을 갈아입고 방을 나서게 되는데, 그에 앞서 대부분의 경

28) 사처방이란 신부집을 지나지 않은 곳에 마련한 장소로서 신랑 일행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신부집에서 내온 간단한 음식으로 요기를 한후 신랑이 예복으로 갈아입는 곳이다. 지방에 따라 '사처방' '정방' '사초' 등 그 명칭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家禮書에 따른다면 '私處'가 옳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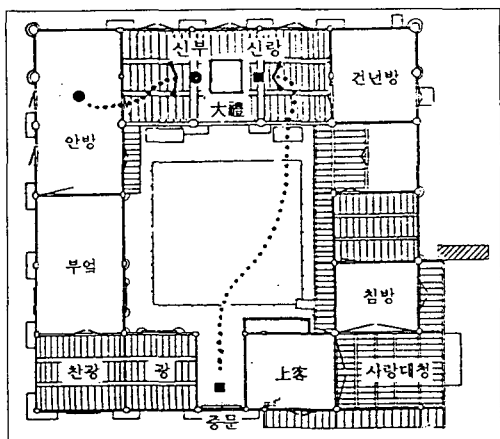


그림 15. 경주 양동마을 손동만 가옥에서의 婚禮時 空間사용

되던 婚禮의 시간을 기다리던 신부는 신부의 아버지나 집안의 청년에 업히거나 안겨서 大禮廳으로 인도된다. 大禮床을 사이에 두고 신랑은 동쪽에, 신부는 서쪽에 서서 交拜禮와 슘쭈禮를 행하게 된다. 이러한 관행에서의 大禮공간은 家禮書와는 다른 것으로 家禮書의 규범에 따른다면 신랑집의 正寢(室)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관행에서는 신부집의 안채가 大禮의 공간으로 사용되었고 조사대상 가옥중 안마당이 아닌 곳에 大禮廳이 차려진 경우는 의성김씨 대종가 뿐이다.

이와 같이 大禮가 끝난 후에는 新房이 차려지게 되며, 신랑은 上客이 있는 사랑채의 사랑방으로 물러나고 신부는 新房으로 돌아간다. 이때 新房이 차려지는 공간은 신부가 대기하던 건넌방이나 머릿방으로서 평소에는 며느리나 경제권을 이양한 할머니가 머무는 장소가 된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신랑집과 신부집의 거리가 가까우면 비록 大禮를 신부집에서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當日于歸’를 통하여 신랑과 신부는 신랑집으로 돌아와 見舅姑禮를 행하고 新房 역시 신랑집의 건넌방에 차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³⁰⁾

30) 『서울民俗大觀(通過儀禮)』(서울특별시, 1993)과 『慶南民俗資料集』(한국문화원연합회, 1993)의 婚禮에 관한 民族誌적인 조사에 當日于歸가 관행에서의 원칙이거나 혹은 신랑집과 신부집의 거리에 따라 當日于歸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랑집

한편, 관행에 있어서 大禮廳이 마련되는 공간은 안채의 형식³¹⁾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표 1.에서와 같이 면담조사가 이루어진 가문만을 대상으로 大禮의 공간을 분석한 결과 안채의 형식이 대청형일 경우에는 大禮廳이 안채의 대청이 되고, 비대청형일 경우에는 안마당이 되고 있다. 다만, 의성김씨 대종가의 경우에만 大禮廳이 셋마당에 차려지고 있어 예외적이다.

두가지 경우 모두 家禮書에서의 공간규범과는 다른 것이다. 즉, 家禮書에서 大禮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正寢의 室로서 규범에 따른다면 大禮廳은 안채의 안방에 차려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범은 大禮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고³²⁾, 폐쇄된 장소에서의 제한된 儀禮에서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장소상의 차이는 조선사회에서의 婚禮에는 大禮에 참여하는 인원도 家禮書의 규범보다 많은 뿐 아니라 보다 공개적인 儀禮로서 작용하였음을 고려한다면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관행에서의 大禮廳은 參禮 인원을 다수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큰 공간을 필요로 하였고, 이에 안채의 안방이 아닌 대청이나 안마당에 大禮廳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大禮廳이 안채의 대청인가 혹은 안마당인가 하는 것은 대청과 안마당의 상대적 규모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한다. 즉, 면담자들 대부분은 대청이 작은 경우에 大禮廳을 안마당에 마련하며, 큰 경우에는 대청에 마련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서울民俗大觀』의 婚禮에 관한 민족지적 조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에 新房이 차려지고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31) 안채의 형식을 대청형과 비대청형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자의 학위논문 “朝鮮時代 中期 이후 班家の 空間사용과 평면형식에 미친 家禮의 영향”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4)의 4장을 참고.

32) 家禮書의 圖說에 따르면 大禮에 참여하는 인원을 신랑과 신부 및 시종자 두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교적 규모가 작은 正寢의 室에서 大禮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안채의 형식과 大禮廳의 장소

가 옥 명	안채형식	대례청의 장소
손 등 만 가옥	대칭형	안채의 대청
낙 선 당	비대칭형	안마당
의성김씨 대종가	대칭형	셋마당
임 청 각	대칭형	안채의 대청
충 호 당	비대칭형	안마당
등 춘 당	대칭형	안채의 대청
외암리 참판댁	비대칭형	안마당
쌍 벽 당	대칭형	안채의 대청
변 덕 우 가옥	대칭형	안채의 대청
권 충 재 가옥	비대칭형	안마당
도 은 구 택	대칭형	안채의 대청
기 현 고 택	비대칭형	안마당
팔 오 현 증가	비대칭형	안마당
남 호 구 택	비대칭형	안마당

있었다.³³⁾ 따라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청의 규모가 3칸 정도로 비교적 큰 대칭형 안채의 경우에는 대청에 大禮廳이 차려졌고, 그 규모가 2칸 정도로서 안마당에 비하여 작은 비대칭형 안채의 경우에는 안마당에 차려졌다고 볼 수 있다.

5. 종합 및 결론

이상에서 冠婚禮를 중심으로 『家禮』를 비롯한 家禮書에서의 행례규범과 실제 班家에서의 행례 절차 및 행례공간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冠禮의 경우 행례절차에 있어서 家禮書의 규범과 실제 관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즉, 家

禮書의 규범에 의하면 三加禮 - 醮禮 - 加字禮가 행례의 중심절차로서 관행에서도 이러한 중심절차는 비교적 잘 지켜졌다. 다만 冠禮가 婚禮에 편입되어 시행되었던 결과 初加·再加·三加로 구성되는 三加禮가 관행에서는 단 한번의 절차로 축약되어 시행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전체적인 절차에 있어서 큰 차이점은 없었다. 이는 관행에서의 冠禮가 대부분 家禮書의 내용에 근거한 笄記에 의하여 진행되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冠禮의 행례절차에 따른 공간사용을 家禮書의 圖說과 실제 班家에서의 면담을 통한 내용을 도식화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행례의 공간이 家禮書에서는 廳事로 되어 있어 관행에서의 사랑채와 명칭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간의 사용방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즉, 家禮書에서의 冠禮는 廳事에서, 즉 廳事의 房과 堂을 이용하여 三加禮가 행하여지고 이후 堂에서의 醮禮와 廳事 앞마당에서의 加字禮가 이어진다. 이러한 공간사용방식은 실제 관행에서 사랑채의 대청마루와 사랑방을 이용하여 三加禮를 행하고 이후 대청마루에서의 醮禮와 사랑마당에서의 加字禮가 이어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표 2)

이상에서와 같이 조선중기에 보편화된 家禮書에서의 규범과 20세기에 조사된 冠禮의 관행이 절차와 공간사용방식에서 큰 차이가 없음은 家禮의 규범이 지속적으로 조선사회에서 준수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사실이다.

한편, 조선후기에 간행되었던 『四禮便覽』에는 『家禮』에는 내용만 설명되어 있는 笄禮에 관한 圖說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笄禮의 공간사용방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冠禮의 공간과는 다르게 正寢이 행례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冠禮와 笄禮의 행례공간이 각각 廳事와 正寢으로 서로 다른 것은 당시 조선사회에서 內外思想에 의하여 남녀의 공간사용이 구분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그렇지만 이러한 차이는 규범과 관행상의 차이이기 보다는 남녀구별의 관습에 의한 부분적인 변형적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3) 『서울民俗大觀』(서울특별시, 1994)의 婚禮편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大禮廳이 안채의 대청에 차려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좁은 경우에는 안마당에 차려졌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며, 이는 필자의 조사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점은 이분들의 증언만으로는 안채의 형식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표 2. 규범과 관행에 있어서 冠禮의 행례절차와 공간사용

가례에서의 규범			반가에서의 관행			
절차	세부절차	공간사용	절차	세부절차	공간사용	
준비	告祠堂	祠堂	준비	告祠堂	사당	
	戒賓 宿賓			主禮 선정		
	陳設	廳事(房)		陳設	사랑채	
	迎賓客升堂	廳事(堂)		主禮 맞이	사랑채	
시행	三加禮	初加	시행	三加禮	사랑채, 사랑방, 사랑마루	
		再加				
		三加				
	醮禮	醮禮		廳事의 堂	醮禮	醮禮
	加字禮	加字禮	廳事의 庭	加字禮	加字禮	사랑채안마당
마무리		見于祠堂	祠堂	마무리	사당뵙기	사당
		見于尊長	正寢		어른뵙기	안채

婚禮의 경우에는 행례절차에 있어서 家禮書에서의 규범은 親迎을 행하도록 하였으나 관행에 있어서는 조선중기의 시행초기 단계부터 親迎이 행하여지지 못하고 半親迎이 행하여졌다. 따라서 家禮書에서는 행례절차상 신부집에서의 奠雁禮 후에 于歸가 이루어져 신랑집에서 大禮가 행하여지고 다음날 見舅姑禮가 뒤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 관행에서는 半親迎의 결과 신부집에서의 奠雁禮 후에 곧 大禮가 행하여지고 신랑집으로 돌아가는 于歸는 며칠 후에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길게는 몇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婚禮의 절차는 家禮書의 규범과 실제 관행이 서로 다른 점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근본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奠雁禮·交拜禮·合卺禮로 구성되는 실제 婚禮의 중심 절차가 家禮書의 규범과 다른 것은 아니었다. 이 역시 冠禮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행에서의 婚禮가 笄記에 의하여 진행되었던 것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다.

婚禮가 어느 곳에서 행하여졌는가 하는 장소의

문제에 있어서 규범에서는 신랑집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관행에서는 신부집이 행례의 공간으로 사용되어 서로 다른 점을 보여준다. 이는 관행에 있어서는 행례절차에서 보았듯이 半親迎이 행하여졌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婚禮 장소의 문제를 차치하고 행례의 공간사용방식을 살펴보면 비록 그 명칭은 다를지라도 廳事에서 奠雁禮를 행하고, 正寢에서 大禮와 見舅姑禮가 행하여지는 공간사용방식이 관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사랑마당이나 혹은 안마당에서 신랑이 奠雁禮를 행하고, 안채의 안마당이나 안대청으로 들어가 大禮를 행함에 있어 婿東婦西하는 관행에서의 공간사용방식은 家禮書에서의 공간사용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다만 家禮書의 규범에 따르면 大禮의 공간은 正寢에서의 室로서 관행에서의 안대청이나 안마당과는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조선사회에서의 婚禮에는 大禮는 참여하는 인원도 규범보다는 많았을 뿐 아니라 폐쇄된 곳에서의 제한된 행사가 아니라 공개적인 행사로서의 의미를 지니

표 3. 규범과 관행에 있어서婚禮의 행례절차와 공간사용

가례서에서의 규범			반가에서의 관행				
절차	세부절차	공간사용	절차	세부절차	공간사용		
의혼	중매	신랑집	의혼	중매	신랑집		
				궁합	양가		
납채	告祠堂	양가 祠堂	납채	告祠堂	양가 사당		
	納采書 (신랑집→신부집)	廳事 祠堂		請婚書, 四柱 (신랑집→신부집)			
	答書 (신부집→신랑집)	廳事 祠堂					
납폐	納幣書 (신랑집→신부집)	廳事	연길	許婚書, 擇日 (신부집→신랑집)			
친영	醮禮(신랑)		반친영	醮禮(신랑)		신랑집 사랑채	
	初行(신랑집→신부집)			初行(신랑집→신부집)			
	奠雁禮	奠雁禮		신부집 廳事	奠雁禮	納幣	신부집 안마당
						奠雁禮	
	醮禮(신부)			신부집 正寢	笄禮(신부)		신부집 건넌방
	于歸(신부집→신랑집)				大禮	交拜合卺	신부집 안대청 안마당
	大禮	交拜合卺		신랑집 正寢(室)		初夜	신부집
		初夜		신랑집	장인장모 인사	신부집 안채	
	見舅姑禮	見舅姑禮		正寢(堂)	于歸(신부집→신랑집)		
		告祠堂		祠堂	見舅姑禮	見舅姑禮	신랑집 안채
		告祠堂	告祠堂	사당			
재형	(신랑집→신부집)		근친	(신랑집→신부집)			

고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이해가 가능한 일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冠婚禮만을 대상으로 행례절차와 행례공간을 家禮書의 규범과 실제 班家에서의 관행과 비교하였을때 알 수 있는 사실은 관행에서의 冠禮가 婚禮보다는 상대적으로 家禮書의 규범에 충실하게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즉, 절차

에 있어서나 공간사용방식에 있어서나 冠禮는 婚禮보다는 家禮書의 규범에 충실하였다. 이러한 상대적인 차이는 冠禮와 婚禮라고 하는 儀禮의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冠禮는 조선시대 이전에는 일반민들 사이에서 행하여졌던 儀禮가 아니었다. 따라서 조선

시대에는 冠禮의 행례자체가 새로운 儀禮로서 『家禮』나 혹은 16세기말 이후 간행되었던 家禮書의 규범이 기본적인 행례의 틀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冠禮의 행례를 위해서는 규범에서의 廳事라는 공간을 실제의 班家에 마련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이에 사랑채가 廳事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婚禮의 경우는 조선시대 이전에도 儀禮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조선시대에 들어 『家禮』에 의한 행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특히, 규범에서의 親迎은 전래의 壻留婦家婚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결국 행하여지지 못하였으며, 시행의 초기단계부터 半親迎이라는 절충 형식으로 시행되었다. 그 결과 婚禮의 규범은 儀禮의 형식을 갖추는 정도의 역할을 하여 大禮의 행례절차에 笏記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실제 관행에서의 공간사용은 규범과는 서로 다르게 이루어져 안채의 안방이 아니라 안채의 안마당이나 대청에서 행하여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관행에서의 婚禮공간을 분석한 결과 가장 중심적인 大禮절차가 행하여지는 大禮廳이 안대청인가 혹은 안마당인가 하는 것은 안채의 형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비대칭형보다는 오래된 형식이라고 할 수 있고, 대청이 3칸 정도로 비교적 넓은 대칭형의 경우에는 안대청이 大禮廳으로 사용되었다. 반면 조선후기에 이르러 대칭형 안채에 비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대청이 2칸 정도로 대칭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좁은 비대칭형의 경우에는 안마당이 大禮廳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안채의 형식에 따른 공간사용방식의 차이는 婚禮의 절차가 조선중기 이후 20세기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家禮』에 의한 婚禮의 시행과정이 결과적으로 대칭형 안채에서 비대칭형 안채로 안채의 형식이 변화되는 과정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로 해석되어진다.

이상에서의 결과는 冠婚禮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家禮의 행례와 班家の 형식 변화와의 상호관련성을 밝히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미흡한 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家禮의 행례와 班家の 형식변화와의 연관성에 관한 결론은 喪祭禮의 행례규범과 관행에서의 공간사용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될 다음의 연구에서 종합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家禮』

『喪禮備要』

『家禮源流』

『四禮便覽』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慶北禮樂誌』, 경상북도, 1989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禮節篇)』, 1987

전라북도, 『全北傳統民俗(상)』, 1990

서울시, 『서울民俗大觀(通過儀禮編)』, 1993

한국문화원연합회, 『慶南民俗資料集』, 1993

장철수,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研究』,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4

李範稷, 『韓國中世禮思想研究』, 一潮閣, 1991

崔在錫, 『韓國家族制度史研究』, 一志社, 1983

朴惠仁, 『韓國의 傳統婚禮研究』,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8

高光林, 『韓國의 婚姻研究』, 교서관, 1990

Kingsley Davis, 『사회학(Human Society)』, 이만갑·고영복 역, 을유문화사, 1969

김기주 외, '16세기를 전후한 班家の 形式變化와 家禮', 『건축역사연구』 4, 1993

高英津, '16세기말 四禮書의 성립과 禮學의 발달', 『한국문화』 12, 1991

박연호, '조선전기 士大夫禮의 변화양상', 『청계사학』 7, 1990

지두환, '朝鮮初期 朱子家禮의 理解過程', 『한국사론』 8, 1982

이재룡, '16세기 조선조 성리학의 규범적 의미', 『민속문화연구』 24, 1991

김기주, '朝鮮時代 中期 이후 班家の 평면형식과 공간사용에 미친 家禮의 영향', 연세대박사논문, 1994

洪升在, '朝鮮時代 上流住宅의 禮制의 體系에 관한 연구', 홍익대박사논문, 1992

朴明德, '嶺南地方 同族마을의 分派形態와 建築特性에 관한 研究', 홍익대박사논문, 1991

A Study on the Ideal Pattern of Family Ritual and the Spatial Use of Yangban Houses

- focused on Gwanrye and Honrye -

Kim, Ki Joo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Ph.D.)

Kim, Sung Woo

(Yonsei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Abstract

Chosun dynasty had accepted the Confucianism as a means of governing whole society and in its practical aspect 『Garye』 and the ceremonies of family ritual regarded as important. As a result, after mid-Chosun dynasty family ritual was begun to popularized on a national scale, and the socio-culture system which was interrelated with it changed into confucian ones. These full-scaled change, on the other hand, resulted into the change of spatial use and plan type of yangban houses.

In this aspect, this study intends to clarify the influence of family ritual on spatial use of yangban houses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ideal pattern and behavioral one of family ritual. And this study made Gwanhonrye except Sangjerye an object because these two ceremonies were performed in sucession in those day's behavior.

The research setting is the Korean traditional society prior to modernization. The collected materials are based on ethnographic information as well as personal documents, public records, field works and the books on family ritual. The methodology for the present study is primarily based on the comparison study between available documents and field work. Especially, as the books on family ritual include some explanatory diagrams of the ideal pattern, these diagrams are compared with another ones made by the author of the behavioral pattern.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in the aspect of Gwanhonrye's process, the ideal

pattern is similar to the behavioral one. But even the essential course of the ideal pattern of Honrye is 'chinyoung', it has never been accepted in Chosun dynasty on account of 'seoryubuga'. Secondly, even though the names of the performing space of family ritual are different each pattern, the methods of spatial use in processing these two ceremonies are similar.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e books on family ritual the major performing spaces of Gwanhonrye are 'chungsa' and 'jungchim', but in practical process of both ceremonies 'sarangchae' and 'anche' are used. Lastly, as family ritual like Gwanrye and Honrye had been practiced at yangban houses after mid-Chosun dynasty as mentioned above, the spatial arrangement had to be changed to a certain extent.